都心통행료 87年부터 부과

교통난 완화책의 일환

"4大門안 자가용승용차 百원"검토

서울시

차량의 도심통행료가 87년부터 부과된다.

서울시는 27일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도시교통 촉진법에 대도시의 도심통행료 징수근거가 규정됨에따라 이법이 시행되는 87년부터 도심통행료를 받기로하고 도심범위와 통행료의 액수, 통행료징수대상 차량등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관계자는 지하철3·4호선이 개통되어도 서울의 교통인구의 23% 정도밖에 담당할수없어 도심교통체증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않고, 자가용승용차의 급증추세 등으로 더욱 악화될우려가 있다는 판단에따라 도심교통난완화책의 일환으로 도심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행료의 액수는 1백~2백원선에서 검토될수있으나 터널 교량등 유료도로와 균형을 맞추기위해 1백원정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도심 범위는 4대문안에 적용하는것보다는 지하철요금 도심구간(독립문-성신여대-청량리-성수동-옥수동-이촌동-합정동)으로 정하는것이 타당할것이라고 말했다. 징수대상은 아직 정해지지않았으나 버스 택시등 대중교통 수단은 제외하고 자가용 승용차로 국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廉普鉉 서울시장 精薄兒시설 위문

廉普鉉서울시장은 27일하오 정박아 1백48명이 수용되어있는서울恩平區[illegible]山洞의 恩平天使院을 방문, 추석을 외롭게 보내고있는 정박아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한편 서울시는 60개사회복지시설을 비롯, 구빈원·복수병원·자활지도원등 총1백개소의 복지시설에 수용되어있는 1만7천7백여명의 불우한 이웃을찾아 4천만원어치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전국근로자 滯賃46億

노동부 "지난해 53億…13% 줄어든것"

추석을 이틀앞둔 27일현재 임금을 받지못하고있는 근로자는 전국 1백39개 사업체의 2만1천5백30명으로 체임액수는 46억3백만원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의 체임업체조사결과에 의하면 이같은 숫자는 지난해 같은시점의 53억원에 비해 13%가 줄어든것인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백개 사업체서 근로자 1만7천9백37명분 임금32억6천3백만원을 체불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區廳·시민봉사실전화 내달부터 3001번

서울시 각구청 시민봉사실 민원전용전화번호가 모두 오는10월1일부터 국번만다르고 3001번으로 통일된다.

서울시는 27일 그간 각구청은 민원신청전용전화로 3001번 1~2회선과 일반전화2~3회선등 3~4회선을 운영해왔으나 최근민원수요가 급증, 일반전화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 모든전화를 3001번으로바꿨다고 밝혔다.

각구청별 민원전용전화의국번은 다음과같다.

▲鍾路=732·733·734▲中區=265·273·274▲龍山=712·713·714▲城東=444·445·447▲東大門=94·922·923▲城北=95·744▲道峰=902·903·994▲恩平=353·385·389▲西大門=332·333·392▲麻浦=312·323·324▲江西=602·603·604▲九老=853·854·856▲永登浦=633·634·675(10월15일개통)▲銅雀=812·813·814▲冠岳=877·878·885▲江南=545(10월18일 2대추가)▲江東=476·477

◇마음은 벌써 고향에… 九老공단내 근로자 1천5백여명이 27일 공단측에서 마련한 7대의 특별열차편으로 永登浦역을 출발, 귀성했다. 공단측은 이날부터 29일까지 매일 경부·호남2개노선에 근로자들을 위해 특별열차를 배치한다. 【永登浦역=李基龍기자】

市追更예산 千6百74億확정

86·88사업 지하철재정지원등에 중점

서울시는 27일 일반회계 1천1백65억원, 특별회계 5백9억원등 모두 1천6백74억원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비해 일반회계 12.8%, 특별회계 4.3%등 모두 8%가 늘어난 규모로 이에따라 올해 서울시의 총예산은 일반회계 1조2백63억원, 특별회계 1조2천2백28억원등 모두 2조2천4백91억원으로 커졌다.

서울시의 올해 추경예산은 전년도 2천4백89억원에비해 32.8%나 줄어든것.

이번 추경예산은 거의 대부분 계속사업인▲올림픽공원조성등 86·88대회대비사업에 2백22억5천만원 ▲漢江종합하수관로시설등 한강개발마무리사업에 38억원▲지하철재정지원에 3백억원▲심신장애자시설보강등 사회복지사업에 47억6천만원▲각종 이월사업에 4백56억원등이 투자된다. 또한 특별회계에선 올림픽경기장건설에 33억원, 城內川치수사업에 19억원, 기채원리금상환에 1백19억9천만원, 각종 이월사업에 3백74억4천만원이 쓰여진다.

「가짜참기름」7年선고

벌금40億 併課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李宰勳부장판사)는 27일 가짜 참기름제조업자인 경북산업사 부사장 崔[illegible]洙피고인(46)에게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 징역 7년에 벌금40억원의 중형을선고하고 이회사 대표 李海成피고인(49)에게도 같은죄를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崔피고인등은 지난77년부터 大邱에 참기름공장을 차려놓고 제과공장등에서 쓰다버린 폐유에 고추씨, 깻묵등에서 짜낸 기름을 섞어 5만드럼(싯가39억원어치)의 가짜참기름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업무정지」취소請求訴

朴燦鍾변호사, 소원·假處分신청도

변호사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新民黨의원 朴燦鍾변호사는27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변호사업무정지명령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朴변호사는 또 변호사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한편 법무부에는 업무정지명령을취소해달라는 소원을냈다.

張基旭변호사등 20명의 변호인단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朴변호사는 『지난20일 내려진 업무정지명령은 변호사법15조에 근거한것으로 이규정은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규정에 어긋나는 위헌조치』라고 주장했다.

「민중의 소리」압수

서울中部경찰서는 27일하오 6시30분께 서울中區 奬忠洞 민주통일민중연합 사무실에서 이단체기관지 「민중의 소리」 10호 1백40여부를 압수했다.

文益煥 民統聯의장 강연길에 警察연행

서울東大門경찰서는 27일상오9시20분께 民統聯의장 文益煥목사를 연행, 조사중이다.

文목사는 이날 하오2시 成均館大 금잔디광장에서 개최될 成大신문사창간 31주년기념강연회에 참석키위해 교문을 들어서다 연행됐다.

李富榮 민생위장도

서울中部경찰서는 27일 民統聯민생위원장 李富榮씨(44)를 연행, 조사중이다.

李씨는 지난26일 서울西大門區弘濟洞 천주교弘濟성당에서 있을예정이던 자유실천문인협의회주최 「제7회 민족문학의밤」에 참석하려다 경찰에 연행됐다.

2백여梨大生 示威

梨花女大생 2백여명은 27일낮12시께 가정관앞 광장에 모여 「학원탄압 결사 저지대회」를 가진뒤 1시간동안 교내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날대회에서 유인물을 통해 ▲학원탄압중지▲미국의 수입개방압력철회등을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시위도중 후문으로 사복경찰관을 투입, 시위를 주도하던 李龍熙양(22·사회4) 등 3명을 연행했다.

東國大 2백여명시위

東國大생 2백여명은 27일낮12시40분께부터 교내도서관앞에서 三民鬪委 결성식을 가진뒤 「민주제개헌쟁취하자」는등의 구호를 외치며 20여분동안 교내시위를 벌이다 자진해산했다.

監神大生 百여명도

감리교 신학대생 1백여명은 27일상오11시50분께 부터 교내에서 「학원법저지및 민주제개헌쟁취대회」를 가진뒤낮12시30분께부터 2시간동안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시위현장에서 수배중이던 이학교 三民鬪위원장 尹光植군(23·신학4)을 연행했다.

보름달맞이 어려울듯

오늘 하오부터 전국에 비

올추석에는 보름달맞이가 어려울것 같다.

중앙기상대는 27일 『중국대륙에서 접근해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8일하오 늦게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오기시작, 추석날인 29일 상오까지 계속되다 갠뒤부터 차차 개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예년과 비슷한 11~21도의 분포이지만, 일교차가 심해 감기등 환절기질환에 유의해야한다.

東燦기업 金昌默회장 本報배달소년에 誠金

東燦企業 株式會社 金昌默회장(사진)은 추석을 맞아 한국일보 배달소년들을 위해 써달라고 1백만원을 본사에보내왔다.

金회장은 매년 추석때마다 1백만원씩을 보내왔다.

泰陵署관내 유지들도

서울泰陵경찰서 중이파출소(소장 韓廣熙경사)청소년선도위원회(회장 崔재훈)와 어머니회(회장 朴금희)는 27일 한국일보중화보급소 배달소년들에게 다과회를 베풀고 T셔츠 25벌을 나누어 주었다.

연극인 徐恒錫씨 별세

한국 연극계의 원로이며 예술원종신회원인 耿岸徐恒錫씨가 27일 하오5시 서울城東區廣壯洞 山21 워커힐아파트 11동802호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6세.

徐씨는 1900년 咸南洪原郡태생으로 일본東京帝大文學部 獨文科를 졸업하고 東亞日報기자로시작, 언론·교육·연극무대에많은업적을남겼다.

31년劇예술연구회창립同人, 국립극장장을지냈으며 70년에 독일문화원의 괴테훈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長男徐振源씨(46·성신양회주식회사상무이사)등 2男1女가 있다.

발인은 10월1일 상오10시, 장지는 경기 南楊州郡 別內面先塋. ☎446-9744

★관련기사 7면

揭示板

訃音

▲崔命煥씨(崔用根三煥企業常務 부친)=27일상오2시龍山區[illegible]洞3街119의2자택서 향년71세 발인29일상오10시 장지 경기도高陽郡碧蹄面[illegible]石里선영☎717131 ▲柳仁淳씨(漢江세무서장 徐廷元씨 모친상)=27일하오1시 大田市中區龍頭洞3의28 자택서발인 10월1일 상오9시 ☎大田②2777 ▲[illegible]씨(한국[illegible] 상=26일 하오6시50분 [illegible] 발인 [illegible]

空港로비

密輸조직 「지게꾼」背信

○…한 미국인의 엉뚱한욕심때문에 국제밀수조직이 金浦공항직원과 연관돼있지않나해서 한때 공항직원들이 긴장하는 소동을 빚었다.

지난 25일 하오6시 KAL편으로 홍콩에 가려던 미국인 존드·만씨(37·무직)는 출국수속을 밟으면서 일주일전 입국때 세관창고에 맡겼던 금괴16개(3kg·싯가3천만원)를 휴대반출하겠다며 찾아갔다.

존드씨의 행동을 수상히여긴 세관원이 존드씨를 비행기안에 뒤따라들어가 방금 세관에서 찾아간 금괴를 보여줄것을 요구했으나 존드씨는 금괴를 갖고 있지않았다.

세관측은 존드씨를 비행기에서 내리게한뒤 금괴가 비행기앞까지 출입이 자유로운 공항직원과의 접선으로 빼돌려진것이 아닌가보고조사를했다.

밤사이 묵비권을 행사하던 존드씨는 새벽녘에야 같은비행기에 탑승한 친구에게 금괴를 넘겨주었음을 자백했는데 존드씨는 원래 홍콩에있는 국제금괴밀수조직의 지게꾼(운반책)으로 이금괴를 홍콩에서 카트만두로 운반하라는 지령을 받았으나 목적지로 가는도중 마음이 변해 이금괴를 통째로 갖기로 작정하고 金浦세관에 보관하면서 세관에 신고한뒤 창고에 보관시켰었다는것.

존드씨는 자신이 직접금괴를찾고홍콩에 갈경우 밀수조직에 발각될것을 우려해 미국에있는 친구를 한국에 불러들여 이친구로 하여금 홍콩까지운반하게한뒤 그곳에서 다른밀수조직에 처분하려 했다는것.

결국 존드씨는 한국에서의 밀수혐의가 없어 26일하오 홍콩으로 다시출국은 했지만 자신의 흉계가 드러나게돼 비정한 밀수조직에서 어떤처벌이 내려질지를 두려워하는모습이역력했다.

金塊3kg 운반중 가로채 金浦공항 한때 긴장

수상한짐 搜索에 2시간

○…인도여객기 공중폭발사건이후 항공사들이 화물·수하물에대해 철저한검사를 하는가운데 조종사들이 화물에대해 과민한반응을 보이고있다.

지난20일 하오8시 승객1백21명을 태우고 제다로가기위해 金浦를 이륙하려던 사우디항공기 조종사는 한승객이 짐만부치고 탑승하지 않았다는 지상근무자의 연락을 받자 이짐을 가려내지않는한 이륙하지 않겠다며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구했다.

결국 항공기안에있던 승객과 짐을 모두 내리게한뒤 승객들이 일일이 자기짐을 확인했으나 남는가방은 없었는데 확인결과 지상근무자원이 착각한것으로 밝혀져 이항공기는 정시보다 2시간이 늦은 이날밤 10시께 金浦를 이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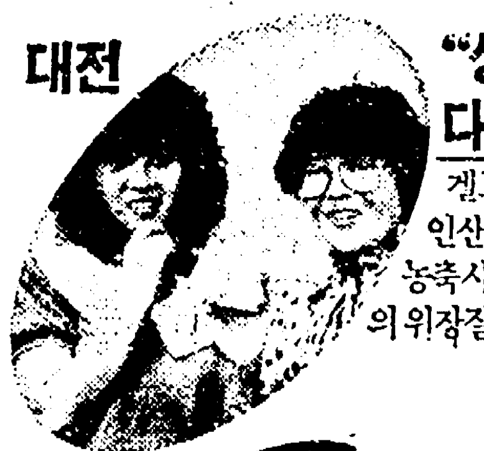
승무원의 밀수도 적발

○…국제선사로 일하는 항공사승무원이 고급시계등 3천여만원상당의 물건을 휴대반입하려다 金浦세관에 적발돼 입건됐다.

24일하오 金浦에 도착한 싱가포르항공승무원 [illegible]씨(24·싱가포르인)는 금장롤렉스[illegible]등 고급손목시계와 다이어 보석[illegible] 곳곳에 감추고 세관검사 받으려다 세관원에 들통이 난것.

[illegible]씨를 조사하던 세관원에 따르면 [illegible]씨가 서울의 H호텔[illegible] 판매책에 이물건을 [illegible] 찾아가기로 돼있다는 [illegible] 지 간첩접선방식의 철저한 점조직 밀수수법에 아연실색 하기도.

【李鎭기자】



보령제약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역시 겔포스

겔포스는 약효와 성분이 다르다고 많은 분들이 확인해 주셨읍니다.

대전 "성분이 다르잖아요"
겔포스는 독특한 성분인 인산알루미늄을 고농도로 농축시킨 콜로이드성 겔타입의 위장질환치료제입니다.

전주 "뭐니뭐니해도 겔포스죠"
피복·보호작용, 제산·완충효과, 장내가스 흡착작용 등의 약효와 함께 안전성을 지닌 제제입니다.

대구 "휴대가 간편해요"
겔포스는 정량섭취 복용이 가능하도록 1회용 포장으로 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복용이 편리해요.

부산 "약효가 좀 다르다데요"
겔포스는 헐은 위벽에 새살을 돋게하는 작용이있어 위·십이지장궤양, 위염 등의 위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우수합니다.

제주 "속 쓰릴때 겔포스 괜찮아요"
겔포스는 복용후 신속한제산작용으로 신트림, 속쓰림을 없애주어 항상속이 편안합니다.

광주 "겔타입은 겔포스 뿐일걸요"
다른 현탁제와는 달리 점성이 높은 콜로이드성 겔타입이기 때문에 피복·보호작용이 더욱 우수합니다.

밤새 시달린 위장을 겔포스로 감싸주세요.

밤새 시달리다 보면 언제나 속이 쓰리고 아픕니다.
식사를 제때 못하거나 조금만 과식을 해도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겔포스」는 밤새 시달린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위장약입니다.

주머니속의 액체위장약

겔포스

위산과다/위염/위·십이지장궤양/속쓰림
식체(위체)/위통/소화불량
●표준소매가격 : 20g×3포 : 770원

ClibPDF - www.fastio.com